러시아에서의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에 관한 연구: 1900-1937*

A Study on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by Korean and Those Contents in Russia: 1900-1937

김 정 현(Jeong-Hyen Kim)**
장 우 권(Woo-Kwon Chang)***
김 홍 길(Hong-Gil Kim)****

〈 목 차 〉

Ⅰ. 서 론
Ⅱ. 러시아 고려인사회와 정보자원 형성과정
1. 고려인 정보자원의 발전단계
2. 고려인 디아스포라 형성과 발전
Ⅲ. 러시아 고려인의 한글정보자원 현황
1. 출판형태와 주제
2. 소장기관
Ⅳ. 결론 및 제언

초 록

해외 한민족의 정보자원의 생성과 변화는 민족공동체의 존립방식이나 사회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고려인이 생산한 한글정보자원 현황(1900-1937)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고려인의 정보자원은 고려인의 이주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려인 사회와 정보자원, 그리고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발전과정, 고려인 한글정보자원을 출판형태와 주제, 소장기관별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하였다.

주제어: 러시아 고려인, 고려인 정보자원, 고려인사회, 고려인 디아스포라, 고려인 문헌목록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se the formative process of the Korean information resources, Korean society, and bibliography and those contents with reference to Korean in Russia. The Research proper time is 1900-1937. Documents analysis, and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 developing and taking form Korean society, information resources, and Diaspora, and the form of publication and subject, collection, the period of Korean information resources and those contents, and a conclusion and suggestion.

Key Words: Russia Korean, Korean Information Resources, Korean Society, Korean Diaspora, Korean Documentation Catalogues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BL2002).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kjhyenn@hanmail.net)(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wk1961@hanmail.net)(공동저자)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simizone@hanmail.net)(공동저자)
• 접수일: 2006년 8월 28일 • 최초심사일: 2006년 9월 8일 • 최종심사일: 2006년 9월 21일

I. 서 론

재외한인의 정보자원 생성과 변화는 민족공동체의 존립방식이나 사회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생산하고 정리하여 보존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재외한인이 처한 현실과 미래의 안위 및 모국과의 관계에 대해 최근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860년대 연해주로의 조선인 이주와 그 이후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전까지 고려인들은 연해주를 중심으로 고려인사회를 번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곳은 구한말과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전초기지였으며, 소연방초기에는 러시아공산혁명의 왕성한 활동중심지였다. 이들은 조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인의 왕성한 정보자원의 생산, 가공, 그리고 유통과 서비스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동안 러시아 고려인의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국내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러시아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 기록관리 측면에만 국한되고 있어 전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30년대 이후 연해주 한인공동체의 붕괴 이후 러시아 고려인들이 한민족 정보자원을 부흥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발굴과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민족 정보자원에 대한 발굴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에서의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고려인사회에서 한글사용 세대가 급격히 퇴장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고려인 정보자원의 소멸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에서 고려인사회의 형성과정, 정보자원의 생성, 그리고 고려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형성과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고찰한 후, 고려인들이 생산한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출판사와 주제별, 소장기관별로 나누어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1900년대부터 1937년에 생산된 러시아 고려인의 정보자원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이 당시에 생산된 고려인의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필자들은 문헌조사와 관련 연구를 위해 2006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스크바 및 상뜨 뻬쩨르부르그 지역을 현지 조사했다. 둘째, 연구조사행위는 주로 직접조사 및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셋째, 러시아 고려인에 대한 정보자원을 발굴하여 서지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러시아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역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러시아 고려인사회와 정보자원 형성과정

1. 고려인 정보자원의 발전단계

지난 140년 동안 러시아 고려인사회는 집합적 해체와 재결합 현상을 반복해왔다. 러시아 공동체가 봉건적 통치에서 사회주의를 지나 다시 자본주의로 전개된 과정에서 러시아 고려인 사회공동체 역시 많은 사회적 격변을 겪었고, 이것은 정보자원의 생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크게 보면 1860년대 이후 1930년대 말까지 약 70년 동안 고려인들은 민족공동체의 거점을 바탕으로 정보자원을 활발하게 생성할 수 있었다. 1863년부터 1905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연해주 고려인 사회는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마을을 만들고, 경작지를 늘리며, 지역공동체를 정착시켰다. 1905년 이후 한반도가 일제에 의해 사실상 강점되면서 연해주 고려인사회는 이민자의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항일의 근거지가 되었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정보자원의 역동적 생산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에서 전개된 혁명운동의 흐름과 항일운동의 요소가 상호 결합되면서 수많은 연해주 고려인들이 항일독립운동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많은 정보자원을 생산하게 되었다. 사회변동 현상은 고려인 정보자원의 발전에 중대한 기회와 한계를 제공했다. 따라서 문화적 상호작용으로서 고려인정보자원의 생성과 변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0년대 극동지역으로 영토 확장에 성공한 러시아는 중국과 북경조약을 맺음으로서 조선과 국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서는 러시아영토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간도지역 일대에는 한인들이 부분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 조선에서의 경제상황과 국내외적인 정세변화 속에서 조선에서 연해주로의 이주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되었으나, 불과 수년 사이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주민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당시 한인에게 있어서나 연해주의 새로운 주인이 된 러시아에게 있어 이러한 대규모의 이주현상은 매우 신선한 것이었고 동시에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인사회는 처음에는 이주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피해 임시로 도피하거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계절성 이동농업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제정러시아의 의도적 이주정책과 한인농민의 자발적인 이주의지, 두만강 국경지대의 취약한 농업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대규모 농민이탈 현상이 출현했다. 이들의 이주는 단순한 경제적인 이주에 그치지도 않았다. 19세기 말에 들이닥친 거대한 격동의 시대를 맞으면서 제2, 제3의 이주민 그룹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밀려들어왔다. 이 점에서 연해주는 이주라는 방식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외면을 확장시킨 새로운 이정표였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민족전체의 위기에 있어 민족공동체의 독립의지를 강렬하게 발산시킨 해외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는 현지에서의 반발과 불신,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을 극복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현지화과정과 민족적 동질성 확보라는 두 가지 문화적 변화를 경험했다.

러시아 고려인의 디아스포라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문화적 변화가 고려인 정보자원의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 고려인 디아스포라 형성과 발전

세계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19세기 중반으로 설정할 때 러시아 고려인사회는 최초의 이민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지역에 정착한 한인들은 140년 동안 수많은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다양한 한인공동체를 형성해왔다. 19세기 이후 약 70년 동안 고려인 1세대 이주민들은 민족공동체를 거점으로 한 문화공동체를 형성했고, 그 속에서 다양한 정보자원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 과정은 단지 주어진 기회를 활용한 것에 있지 않았고, 치열한 항일투쟁, 차별당하지 않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 한민족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늘날 러시아와 주변국가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수많은 역사적 고난을 경험했던 세계한민족 중에서도 매우 비극적인 삶을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유라시아대륙에 흩어져 살았지만 닥쳐온 문제들 속에서 단련되었고, 시련을 통해 성장했다. 고려인공동체의 형성과 이주방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보자원의 생성과 유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70년 동안 3차례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했고, 1945년 이후 소비에트 건설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왔다. 이 과정은 이민의 동기나, 활동지역, 한인공동체의 변화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1)]

제1차 디아스포라(1863-1905년)는 연해주 남부 변강지역으로의 농사를 짓기 위해 시작된 '농업이민'의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고려인들은 한반도와 근접한 연해주 지역에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고, 생업 수단으로 벼농사, 옥수수, 콩과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연해주에서의 본격적인 촌락공동체를 형성했다.

제2차 디아스포라(1905-1937년)는 한반도의 일제강점이라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디아스포라였다. 따라서 이주의 성격도 해방, 저항, 도피의 차원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제2차 디아스포라 시기에는 도시건설이 확대되면서 많은 고려인들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조선에서 지식인들이 대거 넘어오면서 교육기관, 언론기관, 출판기관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체계적인 정보자원의 생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년도 안되었던 1913년 10월 25일 연해주 총독이 연해주지역으로의 고려인 이주 50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연해주에서 고려인의 사회정착은 성공적인 것이었다.[2)]

---

1) 러시아 고려인 이주에 대한 시기구분은 이광규, 재외한인의 인류학적 연구(서울: 집문당, 1997), pp.146-164를 참고함.

2) 러시아정부는 고려인의 이주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을 이주 초기부터 관리하였으며, 고려인들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 문서보관소 등에 보관된 자료들을 통해 19세기 고려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3차 디아스포라(1937-1991년)는 연해주 고려인의 자발적 선택보다 스탈린시대 소비에트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성격'의 디아스포라였다. 이것은 러시아 고려인의 삶의 근거지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모스크바, 사할린 지역으로 확대시켰고, 정보자원의 형성도 분산적이고 지역성을 띠게 되었다. 정보자원의 관리와 생성이 고려인사회에서 소련정부로 이동함에 따라 소연방 수도인 모스크바가 고려인 정보자원의 지역적 및 관리적 거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제4차 디아스포라(1991년 이후)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함께 나타났다.[3] 이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인 속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 한인공동체의 지역 기반이 언어와 문화적 요소에 의해 도전을 받았으며, 둘째, 사회주의체제의 해체이후 지역적 차원에서 생성된 민족요인과 함께 고려인의 문화 및 민족정체성의 위기가 출현하였고, 셋째, 소비에트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이주 이후 명예회복과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재이주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넷째,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고려인사회가 개방의 물결 속에서 모국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러시아에서 고려인 정보자원의 발전과정을 러시아사회와 고려인의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하고 접근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고려인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자원을 출판형태, 주제, 소장기관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Ⅲ. 러시아 고려인의 한글정보자원 현황

1. 출판형태와 주제

1945년 이전에 연해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에서 출간된 고려인들의 한글문헌자료를 러시아연방레닌도서관, 러시아국립역사도서관, 외국문헌도서관,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 상뜨 뻬쩨르부르그 국립대학도서관, 이르쿠츠크 문서보관소, 하바로프스크 극동문서보관소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원문정보를 가감 없이 정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보자료의 서지사항과 목록을 현재의 문법체계나 한글표기법으로 무리하게 옮겨 적을 경우 언어의 시대적 특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한글로 발간된 고려인 신문과 정기간행물

연해주지역 고려인들은 정착지에 공동체를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고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원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신문이나 잡지, 소식지 등을 발행하

3) 보리스 박, 니꼴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김광환, 이백용 역(서울: 시대정신, 2004), pp.403-525.

고, 초중등학교 및 꼴호즈 청년학교용 교과서를 제정하여 출간하였으며, 문화와 각종 산업분야의 서적, 조선문 목록집, 사회주의 학습 및 당 출판물 등 활발한 출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출판물 가운데 특히 신문이나 잡지, 소식지 등은 고려인 사회를 결속시킨 문화적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1908년 2월 26일에 고려인 최초의 한인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해죠신문(海朝新聞)」이 발행되었다. 이 신문은 3개월 동안 순한글로 발행되었으며, 5월 26일 제75호까지 발간된 일간지였다. 이 신문은 교포신문이자 계몽신문이며, 최초의 연해주 한인신문이었다는 점에서 한성순보나 독립신보에 비견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신문제호가 「해죠신문」으로 된 것은 블라디보스톡의 한자 표기인 해삼위(海蔘威)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신문이라는 의미였다. 해죠신문 이후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로프스크에서는 다양한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었다. 1908년부터 1917년까지 대동공보(大東共報), 대양보(大洋報), 권업신문(勸業新聞), 자유종, 청구신보, 일세보, 한인신보가 발행되었다. 신문과 잡지의 발행주최들도 노령 한인회, 청년근업회, 권업회(勸業會), 한인사회당, 고려족 연합중앙총회, 연해주한인사회당, 신한촌민회와 같은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다양했다.

1919년 이후 1937년까지 러시아 고려인사회에서는 총 18개의 고려인 언론기관이 형성되었고, 이들을 통해 고려인에 대한 삶의 자취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언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19년 4월 2일 한족연합회에서 제작된 「국민성」이라는 잡지는 3.1운동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인데, 한족연합회는 이듬해 9월 「자유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중의 목소리」, 「새세계」, 「새벽북」, 「적기」, 「동아공산」 등이 1920년에 만들어졌고, 발행인들은 유진구, 최태일, 오성묵, 이다물, 이인섭, 나만춘, 한봉익, 이성, 박승만 등이었다. 이 잡지들의 특징은 주로 옴스크와 이르쿠츠크지역의 한인공산당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동아공산」은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만든 기관지였다. 1921년에는 러시아공산당 극동국한인지부에서 계봉우를 중심으로 치타에서 「노동신보」를 발간하였고, 1922년에는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자치위원회에서 「자위회보」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8월에는 러시아공산당 연해지부연합회 산하 고려인출판부에서 「붉은긔」를 발행하였다. 이 잡지들은 대부분 몇 회 이상 발행되지 못하였다.

1923년 고려공산당 해삼위지부에서 「선봉」이라는 잡지가 발간되면서 고려인의 소식들을 전하는 대표적 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선봉」 1-3호까지 제호를 3월1일이라고 했으나 제4호부터 「선봉」으로 고쳐 사용했고, 1937년 9월 12일 폐간될 때까지 주1회 또는 주2회(일, 목)에 걸쳐 발간되어 고려인사회의 중심적 정보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전문출판물로 「연해주어부(1930-1933 총161호)」, 「광부 1932.11-1933.1」가 발간되었고, 포시에트 엄떼에스 정치부 김아파니시에 의해 「공격대원-총 144호」이 발간되었으며, 연해주 변강위원회 문화선전부도 「당교육(1932.11-1934.3 총 12호)」을 출간하였다. 또 러시아정부가 고려인 이주를 위해 수립한 2차 5개년계획을 전파하고자 만든 공산당 기관지로 「동방꼼무나(1929-1933.4)」, 블라디보스톡 나젠스크 정치부에서 발간한 「쓰

딸린네트 (5일간격, 1933.12-총 9호)」, 스꼬또브 구역당 위원회가 만든「레닌광선(1936.10- 1936.11 총 7호발간)」 등이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연해주에서 발행된 한글소식지(1908-1937년)

발행년	잡지명	발행인	발행처	주요특징	발행지
1908	해조신문	최만학,듀코프,장지연	노령한인	1918.2.26-5.26(일간)	블라디
1908	대동공보	유진율	노령한인	1908.11.8-1910.9.10(총135호)	블라디
1911	大洋報	신채호	청년근업회	1911.6-1911.9.14(총 13호)	블라디
1912	권업신문	듀코프,신채호,이상설, 김하구	권업회	종간(126호)1912.4.12-1914.8.30	블라디
1917	자유종	김립	한인사회당	한인사회당기관지	하바롭
1917	청구신보	윤해	고려족연합중앙총회	1917.7.5-총 27회까지 남음	블라디
1917	일세보	전일	연해주한인사회당	1917.7	블라디
1917	한인신보	한안드레이, 장기영, 김하구	신한촌민회	1917.7.8	블라디
1919	국민성	한족연합회	한족연합회	1919.4	니꼴라예프스크
1920	자유보	한족연합회	한족연합회	1920.9	블라고베센스크
1920	대중의 목소리	유진구	추풍솔발관	솔발관한족공산당기관지	
1920	새세계	최태일,오성묵	아무르한인공산당	아무르 한인공산당 흑룡주연합회	블라고베센스크
1920	새벽북	이다몰,이인섭	옴스크 한인공산당	1920.5	옴스크
1920	적기	나만춘,한봉익	러시아공산당 이르쿠츠크	러시아공산당 이르쿠츠크지부 소식	이르쿠츠크
1920	동아공산	이성,박승만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 중앙위	이르쿠츠크
1921	노동신보	계봉우	러시아공산당한인지부	치타(공산당 극동한인지부 당소식지)	치타
1922	붉은긔	공산당연해지부연합회	공산당연해지부연합회	1922.8(고려인출판부 교육지)	블라디
1922	자위회보	신한촌 자위회	신한촌 자위회	블라디보스톡 신한촌 소식지	블라디
1923	선봉	고려공산당해삼위지부	고려공산당해삼위	1923.3-1937.9(3.1신문)	블라디
1932	연해주어부	한블라디미르	블라디보스톡식량작업회	블라디보스톡식량산업회 1932-1933	하바롭
1934	광부	한브라디미르	아르쫌 구역당간부	아르쫌탄광소식(1932.11-1933.1)	하바롭
1932	당교육	이광, 라공	연해주문화선전부	1932.11-1934.3(총 12호)	하바롭
1929	동방꼼무나	김태봉	흑하시당간부	흑하시 1929-1933.4 발행	흑하시
1933	공격대원	김아파나시	포시에트엠떼에스정치부	1933-1935(레닌의길로 통합)	포시예트
1935	스딸린네츠	사랍낀	블라디보스톡크나젠스크	1933.10-1933.12(총9호) 5일간격	블라디
1936	레닌광선	정한림	스꼬또브지구당위원회	1936.10-1936.11(총7호)	스꼬또브

이 밖에도 1935년 모스크바의 외국로동자출판부에서 발행한 한글소식지「앞으로」가 있으며, 1935년(1-4)과 1936년(1-6)호가 레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나.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1) 한글교육 교과서

연해주에서 소비에트 건설 초기 고려인들에 의한 교육출판이 시작된 것은 1923년부터였고, 이 책들이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이후부터였다. 〈표 2〉에서와 같이「붉은아이」와「고려말과본」 같은 책자들이 초등학생부터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급되었으며,「고려어교과서」

나 「꼴호즈건설자」는 한글교육을 위해 성인들에게 배포된 책들이다. 또한 「공격대원」은 문맹퇴치용으로 제작되어 학교에 보급된 책이다. 1930년대 중반이후에는 고려인교과서라는 이름의 책들이 다수 발행되었으며, 계봉우와 오창환 등이 대표적인 집필자로 활약하였다.

연해주에서 고려인 한글교육용 교과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춘 교과서 개발이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글교육용 교재는 간혹 잡지형태나, 정치 팜플렛 형태로 대체되기도 했지만, 풍부한 내용과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당시 교과서 제작자들이 한글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세심하게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목록: 한글교육 교재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24	붉은아이	연해도교육부	한글	로력학교용새독본	해삼위	연해교육부
1924	붉은아이	미상	한글	원동로력학교용 새독본. 제1~4권	블라디	도서주식회사
1926	붉은아이	미상	한글	원동로력학교용 새독본. 제1~3권	블라디	도서주식회사
1927	독본 붉은아이	미상	한글	원동교육부		도서주식회사
1929	새학교	미상	한글			
1930	독본 새학교	리병국 외	한글		하바롭	
1930	자란이의 새독본		한글			
1931	꼴호즈건설자	꼴호즈당간부	한글	고려일급학교용		
1932	어린투사		한글	초등3학년용 잡지	하바롭	원동국립
1932	고려어교과서	계봉우,강채정	한글			
1932	고려어교과서	계봉우	한글			
1932	공격대원		한글	문맹퇴치학교용	하바롭	원동변강
1932	고려말과본	오창환, 박유경, 한재윤	한글	초등제4학년국어교과	하바롭	
1933	문자편	리광, 오성묵	한글	조선어교육 문법교재	하바롭	
1934	고려말과본	오창환, 박춘근, 김산	한글	초등3학년용 국어	하바롭	
1934	조선어교과서	오창환	한글	소식자학교용 문법	하바롭	
1935	중등조선어문법	오창환	한글	중등학교용	하바롭	

(2) 수학 교과서

1920년대부터 30년대 후반 고려인사회에서 사용된 교과서들은 한글교과서 뿐만 아니라 수학, 물리, 지리, 역사, 화학분야에서도 한글로 된 교재가 사용되었다. 수학분야의 발굴된 자료들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6종으로 수학과 기하학, 산수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 중에 「초급수학」과 「산수」는 간단한 수학의 기본원리와 공식을 제시한 것이었고, 「수학과본」은 콜호즈 청년학교 교재로 사용되었다. 수학교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산수 또는 산술교과서 등 기초수학 교재를 사용했다. 5학년 때부터는 중등학교로 불렀으며, 5-6학년부터 수준이 높아지고, 7-8학년 교재에는 기하학과 기하학문제풀이, 평면삼각법 등 교과과정이 심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4]

4) 참고로 1950년대 한글로 제작된 수학 교과서는 모스크바의 학용출판사나 교육도서출판사에서만 발행하였

〈표 3〉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목록: 수학교재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32	초급수학 초등학교용	연해도교육부	한글	원동로력학교용	블라디	연해교육부
1932	초급수학	미상	한글	-초급학교 4학년용		원동국립
1932	초급수학	미상	한글	-초등학교 2학년용		원동국립
1932	수학과본 제2학년용, 제1-2권	세까엠 페제에쓰	한글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수학과본, 제1-2권	미상	한글	꼴호즈 청년학교용		원동국립
1933	초등학교산술교과서1-3권	뽀뽀바, N. 쏘	한글		블라디	원동국립
1934	기하학문제집:평면기하	륍낀, N,	한글	중등학교(8학년용)	하바롭	원동국립
1935	산술교과서	뽀뽀바, N. 쏘,	한글	소학1년용	모스크바	연합출판
1936	중등 기하학문제집	륍낀, N,	한글	중등 6-8년용	하바롭	원동국립
1936	삼각법문제집	륍낀, N,	한글	중학교 8-9년급용	하바롭	원동변강
1936	평면삼각법	륍낀, N,	한글	중학교 8-9년급용	하바롭	원동변강

(3) 지리교과서

1920년대 이후 고려인들이 쎄쌔쎄르 등지의 콜호즈와 각급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했던 지리교과서나 화학교과서, 물리교과서는 매우 수준이 높다. 그들은 이미 러시아어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번역수준도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각 책자들은 대부분 간략한 형태로 출판되었고, 비교적 쉽고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나 삽화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특히 세계지리 6학년용 교과서의 경우 천연색의 컬러화보를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는데, 아주 화사하고 색감이 좋아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표지색이 바래지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표 4〉에서와 같이 발행 시기는 1933년에서 1935년 사이에 집중되었고, 1950년대 이후 출판물들은 주로 모스크바 국립교육출판사와 국영학용서적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는 주로 바로꼬브, 쩨렌호브, 쓰차쓰뜨녜브, 뿔로윈끼냐 등의 러시아학자들의 저서를 러시아 고려인인 리진수 등이 번역하여 한글로 출판한 것이었다.

(4) 역사와 정치교과서

1920년대 후반 이후 연해주에서 발행된 역사교과서에는 「력사」, 「로씨야 력사교과서」, 「계급투쟁사」, 「초등학교 력사교과서」, 「력사교과서」 등이 있다. 그리고 정치교과서인 「정치학초보」가 있으며, 이는 현대 정치학개론과는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고, 주로 맑스레닌주의 교과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다. 이 교재들도 초급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부터 6-9학년까지 수준별 교재로 발간되었으며, 사할린 지역의 고려인들에게 교재로 제공되었다.

〈표 4〉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목록: 지리교재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32	쎄쎄쎄르 지리학과본	꼴호즈 청년학교	한글	꼴호즈청년학교 2학년용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초등지리과본	미상	한글	초등학교 4학년용	하바롭	원동국립
1933	초등학교 지리교과서	쩨레호바: 에르젤리	한글	모스크바-하바롭 출판	모스크바	연합국립
1934	지리학교과서	뽀쫄낀: 쩨레호브	한글	소식자학교용	하바롭	련합국립
1935	중등학교자연지리 교과서	바르꼬브: 쁘. 로빈긴	한글	교과서(5학년용)	하바롭	원동변강
1953	자연지리초급	바로꼬브: 뽈로윈끼냐	한글	중학제5학년용교과서	모스크바	국영학용
1957	세계지리교과서	쓰차쓰뜨녜브: 쩨렌호브	한글	리진수 역(중학 6학년용)	모스크바	
1958	쏘련자연지리	스뜨로예브, 까. 페.	한글	교과서(7학년용)	모스크바	국립교육
1960	세계지리	쓰차쓰뜨녜브: 쩨렌호브	한글	리진수 역(중학 6학년용)	모스크바	국립교육

(5) 사회주의 학습교과서

한글로 만들어진 사회주의 학습교과서로 「레닌주의의 초보」, 「농촌공산당청년들에게」, 「쏘련공산당 50년」 등이 발굴되었다. 이외에도 코민테른 관련 서적, 지령, 지침 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 학습서적으로 활동되었고 대부분 원동변강 당 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6) 물리교과서

물리학교과서는 중등학교 교재와 꼴호즈 청년학교용이 분리 제작되었다. 〈표 5〉에서와 같이 제작 시기는 1931년과 1934년 사이에 집중되었고, 물리과목은 5학년부터 보급되었다. 물리학 교과서는 소련의 기초과학분야 수준을 짐작할 만한 학습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100쪽 안팎이었고, 최대 178쪽에 달하기도 하였다.

〈표 5〉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목록: 물리교재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31	물리학 꼴호즈청년학교용(제1권)	미상	한글	꼴호즈학교용 교육교재	하바롭	국립연합
1931	물리학 꼴호즈청년학교용(제2권)	미상	한글	꼴호즈학교용 교육교재	하바롭	국립연합
1932	물리학교과서	미상	한글	꼴호즈청년학교 1학년용	해삼위	원동국립
1933	중등학교 물리학교과서(6년용)	미상	한글	중등학교 물리교과서	하바롭	원동국립
1934	중등학교 물리문제집(5-7년용)	미상	한글	중등학교 물리문제집	하바롭	원동국립
1934	중등학교 물리학교과서(1-3권)	미상	한글	중등학교 물리교과서	하바롭	국립연합
1934	중등학교물리문제집(5-7학년)	미상	한글	중등학교 물리교과서	공통	국립연합

(7) 화학교과서

화학교과서는 〈표 6〉에서와 같이 주로 꼴호즈 청년학교와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진 교재였으며, 응용 가능한 화학이론과 실제를 혼합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재의 수준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으며, 목차가 대부분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표 6〉 한글로 발행된 고려인 교과서 목록: 화학교재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31	화학교과서 1	미상	한글	꼴호즈청년학교	하바롭	원동국영
1931	화학교과서 2	미상	한글	꼴호즈청년학교	하바롭	원동국영
1934	중등학교화학교과서	미상	한글	7학년용 교제	하바롭	원동국립
1936	중학교화학교과서	미상	한글	제10학년용 교재	하바롭	원동국립
1937	중학교화학련습문제집	미상	한글	중학교과 문제집	하바롭	원동국립

다. 산업활동에 관한 고려인 문헌

고려인들은 192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표 7〉에서와 같이 농업, 어업, 축산, 양봉 및 양잠, 광업, 상업, 계획경제 등 직능별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발간하였다. 국립레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 중에서는 러시아 고려인들이 산업분야별 지식을 정리한 소책자들이 다수 발굴되었으며, 이들 책자는 1930년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었다. 대부분의 책자들은 성인이 손바닥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로 14cm×세로 18cm 정도의 소책자이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다.

농업분야는 주로 파종기, 또는 곡물 수매, 농산아르쩰리의 규칙, 농업학교 교육용 교재 및 간이지도서 등에 관한 출판물이 발행되었으며, 어업분야의 출판물도 어업의 기술, 어업시기, 어업인을 위한 청년동맹 조직 규약과 같은 내용을 다룬 책자들이 발행되었다. 이러한 서적들은 대부분 산업활동이면서 생활속의 일상적인 작업지침서들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연해주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해주는 것들이다.

〈표 7〉 산업활동 관련 고려인 문헌목록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주요특징	발행지	발행처
1923	잡초와의 투쟁	마리꼬브쓰끼			하바롭	원동국립
1926	농민상조회규뎡	미상	한글	조직규약	해삼위	원동국영
1928	파종깜빠니야에 당면한 농민들의 참고거리				하바롭	
1930	파종 깜파니에 대한 재료수집	미상	한글	자료보고서	해삼위	
1930	연해도어업공리사 상조 저금국의 규측	연해주어업공리사	한글	조직규약	해삼위	
1930	마지막으로 결정, 승인된 농산아르쩰리의 모범적 규측	미상	한글	조직규약	하바롭	
1931	원동변강꼴호즈제1차대회결정들	미상	한글	활동문서	하바롭	
1932	농업과본, 2학년용	미상	한글	농민교본	해삼위	원동국립
1932	곡물 및 수육매수와 쏘베르산업	미상	한글	자료보고서	하바롭	원동국립
1932	벼농사의 수확률을 높이자	드미뜨리예브		활동지침서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옥수수	체까떨로, 아			하바롭	원동국립
1933	원동의 벼농사	민홍, 박디미뜨리			하바롭	원동국립
1933	깜북이와의 투쟁	주 알렉세이			하바롭	원동국립

1933	콩과 그 재배법	장도정			하바롭	원동국립
1934	춘계 파종준비에 대한 결정		한글	활동지침서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4	어떠케 꼴호즈원은 유족하게 되는가	김태연	한글	자료보고서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농촌경리 알쩰리의 모범 규측	미상	한글	조직규약집	하바롭	원동국립
1935	정지, 파종 및 정곡귀게에 대한 간이지도	쏘꼴로브, 아, 프	한글	활동지침서	하바롭	..
1935	원동변강에서의 농작물의 병해와 동물해		한글		하바롭	원동극립
1931	어업알쩰리의 모범적 규측	미상	한글	조직규약집	하바롭	국영련합
1931	정어리	까가높스끼이			하바롭	국영련합
1932	고기를 위하여	꿀릐긴,	한글	활동지침서		원동국립
1932	고기잡이에 대하여. 리문현 번역	게라씨모브, 므			하바롭	원덩국립
1933	어장에서 투쟁하는 공산청년	김와실리.	한글	활동지침서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4	누가 어업에서 승리의 기빨을 전취할가?	뽀몰쩨브, 르	한글	활동지침서	하바롭	당출판원동
1931	도야지 치는 법	이와노브, 므			하바롭	국영련합
1931	닭치는 법, 단합적 또는 개인적으로	빠뜨리크,이,A			하바롭	국영련합
1932	토끼치는자의 지남	클레첸코, 아			하바롭	
1934	원동변강에 힘있고 건강한 말				모스크바	국영련합
1932	원동변강에서의 양잠업	리동휘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원동변강에서의 양봉업	리설송			하바롭	
1932	원동에서의 양잠상식	백성환			하바롭	
1934	원동변강어업꼴호즈 로력조직과 수입분배	원동어업꼴호즈	한글	활동보고서	모스크바	연합국립
1931	쎄쎄쎄르 광산로동자직업회 원동변강위원회와 북화태석유주식회사 단체계약		한글	활동보고서	하바롭	
1930	상점 꼬미씨야와 그 사업	데니쏩으,쓰아.				원동변강소비조합동맹

다. 여성, 건강, 질병에 관한 고려인 문헌

1920년대와 1930년대 연해주지역에서 고려인 여성의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여러 자료들이 출판되고 있었다(표 8 참조). 이들 자료는 하바로프스크나 블라디보스톡에서 목록만 있고,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문서목록을 보다 세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1927-1928년에는 「녀자지도원의 지남과 여자대표지도강령」이 배포되었는데, 이는 그 당시 공산당 조직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사회적으로 수평적인 남녀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표 8〉 여성관련 고려인 문헌목록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25	해방전선의 고려로력녀자	당여자부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25	녀자대표. 재료수집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26	삼월팔일에 고려로력녀자에게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27	녀자지도원의 지남과 여자대표강령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32	여자가 나아간다	클레베르 외	한글	단행본	하바롭	원동국영
1932	여자대표회의사업에 대하여	크랍첸꼬	한글	단행본	하바롭	원동국영
1932	녀자대표통상회의 강령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34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의 행동강령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한편 연해주에서는 1920년대와 30년대에 〈표 9〉에서와 같이 건강관련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었다. 이들은 아동교육, 성교육, 탁아소에서의 위생지식, 전염병예방법, 아편 및 폭음경고책자, 여자위생, 식사와 새 풍습, 천연두와 종두, 적십자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의 성적 성숙과 성적 교육」이라는 책은 당시 고려인사회가 성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높았고, 비교적 일찍 이 문제에 개명한 사회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9〉 건강관련 고려인 문헌목록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25	임부와 유모의 알어야 될 것		한글	단행본	해삼위	연해도위생부
1928	네건강을 보호하여라	삐오네르야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28	녀자위생	투리예, 아, 유	한글	단행본	해삼위	레쎄페쎄레적십자회
1928	천연두와 종두(天然痘와 種痘)	가마떼야, 노, 프	한글	단행본	해삼위	레쎄페쎄레적십자회
1928	생식귀와 화류법과 그와의 투쟁	골봅으, 브	한글	단행본	해삼위	
1930	아이를 옳게닙히라	그린베르그	한글	단행본	하바롭	인민교육
1930	아동의 성적 성숙과 성적 교육	꼬곤	한글	단행본	하바롭	
1930	찌프쓰(열병)와 그들과의 투쟁		한글	단행본		
1930	식사와 새풍습	까로브	한글	단행본	하바롭	
1931	원동변강탄광에서의 해한 귀생충에 대해	즈메예브	한글	단행본		원동변강
1932	탁아소에서의 위생의 초보적 지식	만나니꼬바: 벨릴크	한글	단행본		원동출판
1933	불행한 경우에와 중독제로써 마취도니때에 하는 초보적 구급	베르란도, 아	한글	단행본	하바롭	레쎄페쎄르적십자회
1931	전염병과 그에 대한 예방법	박윤하	한글	단행본	하바롭	국영련합
1932	폭음은 건강의 원쑤이다	로스노브,웨.예	한글	단행본		유즈노사할린
1929	아편먹는 일은 어떤 해독을 주는가	야워르쓰끼	한글	단행본	하바롭	원동변강직업동맹

마. 생활상식 및 민속문화에 관한 고려인 문헌

1930년대 러시아 고려인들은 〈표 10〉에서와 같이 문화와 일상생활 관련 책자들도 출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책자들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소책자형태의 포켓용 일반상식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명절관련 기록으로 계봉우의 「고려인의 구력과 명절미신」책자가 있으며, 고려인의 문화와 풍속에 대해 문하우젠이 경험담을 기록한 「문하우젠이 격근 별아별히 한인한인들」같은 자료는 당시의 문화적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간혹 용어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언어학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930년대 고려인들의 문헌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당대의 시대적 삶의 기록에 대해 비교적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표 7〉의 단체계약이나 농민상조회규정과 같은 자료들은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표 10〉 생활상식 및 민속문화 관련 고려인 문헌목록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33	칠어를 어떻게 간잡할까	바스게롭	한글	단행본	하바롭	국립원동
1934	채소저장의 간호법	와쓰리엠쓰끼	한글	단행본	하바롭	연합국립
1933	뜨락또르 운전수의 닞지말고할일		한글	단행본	하바롭	원동변강당
1931	원동변강에서의 겐작고사용	장도정	한글	단행본	하바롭	국립련합
1931	고려인의 구력과 명절미신	계봉우	한글	단행본	하바롭	원동변강
1931	꼴호즈에서의 문화와 생활제도		한글	단행본	하바롭	국영련합
1931	민족문제		한글	단행본	하바롭	국립련합
1935	문하우젠이 격근 별아별히 한인한인들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외국노동자

바. 음악 및 문학에 관한 고려인 문헌

음악자료로는 「해표음악가」, 「인민희곡집」, 「송가」 등이 있으며, 특히 1932년에 만들어진 「혁명창가집」은 40여곡의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각종 소설 및 시집으로는 「일설춘향전」, 「홍경래」, 조기천의 「백두산」, 이태준의 「농토」, 최명우 창작집의 「맥령(麥嶺)」, 김준희의 「십오만원 사건」, 김상오의 「우리의 날」, 박일 편집 「조선시집」, 「조명희 선집」, 「최서해단편집」, 이기영의 「땅」, 조명희의 「낙동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쎄쎄르 헌법(기본법)」, 「초등학교 검정시험」, 「원동변강인민교육부 편지」, 「아이들에게 벌을 주지 말라」 등의 자료들이 있다.

2. 소장기관

가. 레닌국립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

〈표 11〉 레닌국립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25-1930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25	녀자대표. 재료수집		한글	단행	해삼위	
	1925년도 고려녀자 대표회 강령		한글	단행	해삼위	
	로씨야레닌공산청년회력사	구르, 레브	한글	단행	해삼위	
	공산청년회야체이끼사업에 대한 재료수집	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해삼위	
1926	공리조합과 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해삼위	
	직업동맹규측의 중요사항		한글	단행	하바롭	
	모뽀르는 무엇인가		한글	단행	해삼위	
1927	당꼰페렌치야의 총게		한글	단행	해삼위	
	각성하는 고려(고려공산당 공판에 제하야)	루빈스데인, 드	한글	단행	해삼위	모스보르현간부
	녀자지도원의 지남과 여자대표-통상회의 강령		한글	단행	해삼위	
	농림로동자직업회사업에 대한재료수집		한글	단행	해삼위	

	모뽀르 야체이카 집행부의 사업	볼류메나우: 김원번 역	한글	단행	해삼현	모뽀르
	모뽀르 야체이카와 농촌		한글	단행	해삼위	
1928	전동맹볼세비끼공산당중앙위원회.뿔레눔	전동맹(볼세비크)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해삼위	
	녀자대표통상회의 강령		한글	단행	해삼위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제八차대회재료수집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해삼위	
	쎄쎄쎄르직업, 회의의의와 과업	보얄쓰끼, 야	한글	단행	하바롭, 해삼위	원동변강직업쏘베르로동출판부
	공장제조소 메쓸꼼내에 조직원들의 사업규정		한글	단행	해삼위	
	모뽀르 검사위원회 사업		한글	단행	해삼위	
1929	국제공산당강령과 헌장		한글	단행	해삼위	해삼현당간부
	식민지와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한 론강		한글	단행	해삼위	
	예고롭으, 브. 끄용농민과 공산당		한글	단행	하바롭	직업동맹-원동변강쏘베트로동
	민족문제.로씨야 볼세비끼공산당 제12차 대표회에서 쓰딸린의 보고와 그에 대한 결정서	쓰딸린, 이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인민교육부
	제4차.블라디웟똑. 1929. 제 4차현당꼰페렌찌야결정	현당꼰페렌찌야	한글	단행	블라디	전동맹공산당 해삼현간부
	제3차해삼현꼰페렌치야결정서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해삼위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6차꼰페렌치아 결정들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하바롭	
	사업의 새방식으루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공산청년회의 당면과업		한글	단행	하바롭	
	침략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는 태평양직업동맹	로좁쓰끼, 아	한글	단행	하바롭, 해삼위	태평양 직업동맹
	쎄쎄쎄르 농림로동자직업동맹은 어떻게 조직되며 무엇을 목적하는가	네쁨나씨이, 느. 쁘	한글	단행	하바롭	
	앞으로 열니는 태평양직업동맹대회의 해석 깜빠니야에 대한 재료	뿌께, 뱌이네	한글	단행	하바롭 블라디	
	직업동맹들의 국제덕련합. 데이편. 32c.	뿌께, 뱌이네	한글	단행	하바롭	
	직업동맹들의 국제덕련합. 데일편, 38c.	뿌께, 뱌이네	한글	단행	하바롭	
	직업동맹들의 국제덕련합	뿌께, 뱌이네	한글	단행	블라디	
	직업동맹실용교과서 1-7편		한글	단행	하바롭	직업동맹-원동변간쏘베트로동
	직업회전동맹소베트는 세쎄쎄르 농림노동자에 대하야		한글	단행	하바롭	
1930	해삼현당간부 제5차 꼰페렌찌야 결정서		한글	단행	해삼위	해삼현당간부
	전동맹공산당 제16차 대표회의 정치사업보고	쓰딸린, 이	한글	단행	하바롭	크니스노예젤로
	전동맹공산당내의 우경에 대하여	쓰딸린, 이	한글	단행	하바롭	해삼현당간부

4천 만권 이상의 막대한 장서량을 자랑하고 있는 레닌국립도서관은 1994년 이후 러시아 국립도서관으로 불리고 있다. 레닌국립도서관 부설 동양학자료센터는 한국학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동양학자료센터의 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서적, 연해주 고려인들의 교과서, 고려인의 언론 및 잡지관련 서적, 단행본, 러시아 고려인들의 이주관련 서적, 농촌 소비에트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기록과 문서, 조선 문서목록, 북한의 각종 잡지, 사회주의 이념서적 등 약 900여건의 자료를

발굴하였다. 〈표 11〉, 〈표 12〉, 〈표 13〉은 레닌국립도서관의 동양학자료센터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 중 1925-1937년간의 단행본 자료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1925년부터 1930년 사이에 발간된 문헌 중 레닌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는 문헌은 40편이었다. 이 중에서 1925년 4편, 1926년 3편, 1927년 6편, 1928편 6편, 1929년에는 17편, 1930년 3편의 자료가 있었다. 1925-1929년까지의 특징은 대부분의 발행지가 해삼위로 쓰여 있으며, 일부 당 지침서 등은 모스크바와 하바롭스크에서 연합 출판한 것들이다.

〈표 12〉 레닌국립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31-1933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31	현 계단에서의 두 전선에 대한 당의 투쟁		한글	단행	모스크바	원동국영
1931	원동변강당교육총서. 1-13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영
1931	십이월련합쁠레눔의 결정		한글	단행	하바롭	국영련합
1931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 원동변강위 쁠레눔		한글	단행	하바롭	국영련합
1931	꼴호즈내당야체이까의 사업규정		한글	단행	하바롭	국영련합
1931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중앙위. 쁠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1	전동맹볼세비끼공산당중앙위원회.쁘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국영련합
1931	전동맹볼세비키당16차대회 민족문에 대하여	술리판, 므	한글	단행	하바롭	국영련합
1931	여자대표회의사업에 대하여	크랍첸꼬, 예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영
1931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제9차	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하바롭	
1931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 원동변강 제5차꼰페렌치야의 재료	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모스크바	국영련합
1931	전동맹레닌공청회 7차전동맹 꼰페렌치야의 결정들		한글	단행	모스크바	
1931	변강간부 공청회 뷰로에서 결정한 해삼시 공청회		한글	단행	해삼시	
1931	전동맹공산당원동변강위원회결정	공산당 원동변강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1932	가-치와 및 정탐과의 투쟁	뷰호네르이. ㅅ브로보ㅅ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2	볼세비크적도정에서	쓸로도브, 엔.아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쓰딸린, 이.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문서적
1932	둘재오년계획에 대하여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전동맹볼세비끼공산당중앙위원회.쁘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전동맹공산당칠차꼰페렌찌야에서한 보고	꾸이비쎄브, 브	한글	단행	하바롭	
1932	1931-1932학년도 초등당학교강령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여자가 나아간다	클레베르; 로르베예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중앙위원회 셋재쁘레눔	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하바롭	
1932	공산청년회에서의 구체적 지도에 대하여	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의 셋재쁠레눔에서 한 브.쁘쓰뜨쇼브동무의 연설	뽀쓰뜨쇼보, 브	한글	단행	하바롭	
1932	전동맹레닌공청회칠차전동맹 꼰페렌치야의 결정들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2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중앙위원회의 셋재쁠레눔의 결정	레닌공산청년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3	국제정세와 국제공산당각지부의 임무	ㅅ구시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3	국제형편과 국제공산당쎅치야들의 과업에 대하여	꾸시넨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3	목재준비소에서의 당적 및 군중사업설치에 대하여	알렐레꼬브, 아	한글	단행	해삼위	국립원동
1933	당청결에 대하여	안젤로비츠, 노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당
1933	전동맹 공산당 원동변강위원회. 쁠레눔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3	전동맹 공산당연해주조직뷰로의 결산	쁘세니찐, 크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병강당
1933	전동맹 공산당 원동변강위원회 쁠레눔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
1933	농민문제에 대한 당의 세 가지 기본구호	쓰딸린, 이.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문서적
1933	당청결에 대하여.	공산당중앙간부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당
1933	쏘련공산당강령과 헌장.	쏘련공산당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당
1933	전동맹공산당 내의 우경에 대하여	쓰딸린, 이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3	어장에서 투쟁하는 공산청년	김와실리	한글	단행	하바롭	
1933	농촌공산청년회관업에 대하여	꼴레쓰니첸고	한글	단행	하바롭	
1933	공산청년회의 임에 대하여	쓰딸린, 이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3	전동맹레닌공산청년회헌장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변강당

〈표 13〉 레닌국립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34-1937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34	새조건새전술	왕민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중국에서의 공산당의 볼세비크화와 레닌주의의 승리의 길	왕민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중국에서의 혁명전쟁무장간섭과 공산당의 임무	왕민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국제공산당ㅅ블레눔 레제와 결의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파시즘과 전쟁의 위험과 각국공산당의 임무	ㅅ구시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인도공산당의 임무에 대하여	올구왈드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XI병강당꼰페렌찌야의 총화에 대하여	뻬뜨로브, 그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4	정동맹공산당(볼세비크) 강령과 규약	전동맹공산당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전동맹(볼)공산당헌장.	전동맹공산당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4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대회 제17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혁명적 위긔의장성에 대하여	마누엘쓰끼, 드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XVII당대회. 전동맹공산당중앙위원회의사업보고	쓰딸린, 이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4	17차당대회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사업결산	쓰딸린, 이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4	조선공산당.조선공산당의 행동강령	조선공산당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국제공산당결정서. VII차 세계대회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인도지나공산당의 임무에 대하여	올구왈드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국제공산당가맹조건 21개조	빼 ㅅ드니츠키, 오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 원동변강위원회. 쁠레눔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5	공산주의자는 이러한 자이어야 한다	크롭쓰카야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전동맹공산당(볼세비크)략사	브.뽀노마로브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5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중앙위원회. 쁠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5	전동맹(볼세비크) 공산당중앙위원회십일월쁠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6	평화를 위한 투쟁의 유일전성	디미ㅅ드호브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전쟁과 긔근과 무권리의 통치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일본공산당	오가노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중국민중의 영웅-방지민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중국민중의령수모택동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정동맹공산당(볼세비크) 강령과 규약	전동맹공산당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전동맹(볼세비크)공산당중앙위원회. 쁠레눔	공산당중앙위원회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6	전동맹레닌공산청년동맹 강령과 규약	레닌공산청년동맹	한글	단행	모스크바	
1936	전동맹레닌공산청년동맹제십차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의 결산보고	꼬싸레브, 아	한글	단행	모스크바	
1937	파시즘과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의 인민전선	디미ㅅ드호브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7	국제공산당. 국제공공산당강령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7	그리고리이 꼰쓰딴찌노위츠 오르도소니끼드제.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국립
1937	당사업의 결점에 대하여서와 트로츠키파와 표리부동자들을 청산 하는 방침에 대하여	쓰딸린. 이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로동자
1937	끼로브략전.1886-1934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노동자
1937	十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쓰딸린. 이.웨	한글	단행	모스크바	외국문서적
1937	전동맹(불세비크) 공산당 력사	야로슬랍쓰끼. 옙	한글	단행	하바롭	원동당출판

1931년 자료는 14편이었으며, 이 중에서 원동변강 당 교육총서를 제외하면 13편은 모두 전동맹 공산당 및 공산당청년회 활동관련 자료들이다. 1932년 자료는 13편 이었으며, 「여자가 나아간다」 등의 서적을 포함해 모든 서적들이 공산당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35년 자료는 15편이었으며, 대부분의 글들은 원동변강위원회와 국제공산당 등 주로 당(黨) 활동서적이 대부분이다. 발행사항의 특징을 보면 1931년 이후 당 출판사의 출판활동이 커지고 있으며, 모스크바에서 연해주지역으로 지시되는 모든 당 출판물들이 한글로 번역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1934년 14편, 1935년 8편, 1936년 8편, 1937년 7편의 한글 단행본들이 있었으며, 이를 출판사별로 보면 모스크바에서 발행한 서적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은 1814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국립도서관으로서 현재 3천 450만권의 장서량을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한국관련 자료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18세기이후 20세기말까지의 한국관련 자료, 한문도서, 고대 역사관련 서적, 한민족 시 문화, 19세기 조선-러시아 관계 서적, 항일독립운동기록, 북한관련 도서 등이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다. 〈표 14〉, 〈표 15〉, 〈표 16〉에는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문헌 중 1925년에서 1937년까지 발행된 단행본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4〉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25-1930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25	자란이의 독본		한글	교과서	블라디	
	공청회 야체카 사업에 대한 재료수집		한글	단행본	블라디	
	임부와 유모의 알라야 될 것	그. 브. 게쭙으	한글	단행본		
	신로(新路)		한글	단행본	블라디	
	어머니독본		한글	교과서	블라디	
1926	공리조합과 공산청년회		한글	소식지		
	농촌공산청년들에게 자번 각국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에 대하여	그레제르 그	한글	단행본	블라디	
	새독본 붉은아이		한글	교과서	블라디	
1927	농민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		한글	단행본	블라디	
	하기유아원은 무엇인가		한글	단행본	블라디	

	하긔유아원사업	쑤롭체바아	한글	단행본	블라디	
	토지법적		한글	단행본	블라디	
	국제혁명자 구제회 규칙		한글	단행본	블라디	
	소년탐험대원의 법측		한글	단행본	블라디	
1928	옮는 병과 그와 투쟁하는 방법. 김병호 옮김	긴스부르그, 쓰	한글	단행본	하바롭	
	생식기와 화류병과 그와의 투쟁		한글	단행본	블라디	
	43소년탐험군의 유희		한글	단행본	블라디	
	생의 기원과 발전	므, 그레야츠키	한글	단행본	블라디	
1929	쎄쎄쎄르 농림로동자 직업회 농촌 상조회의 모범적 규측		한글	단행본	블라디	
	민족문제		한글	단행본	하바롭	
	사회주의 쏘베트공화국 동맹농업		한글	단행본	블라디	
	국제공산당 헌장과 강령		한글	단행본	블라디	
	토지사용과 토지정리의 일반적시초		한글	단행본	블라디	
	성인문맹퇴치 소강렬		한글	단행본	블라디	
	교원참고자료수집		한글	교과서	하바롭	
	새학교 독본 제1권,1편		한글	교과서		
	구역, 면, 농촌 쏘베트 꼬미사아의 사업규정		한글	단행본	하바롭	
	사업의 새방식으로		한글	단행본	블라디	
	싸 홈 단편소설	김유경	한글	소설	하바롭	
1930	아이를 옳게 닙히하	므, 그렌베르그	한글	교과서	하바롭	
	독본새학교	리병국 외	한글	교과서	하바롭	
	쎄쎄쎄르 전투적 무신론자동맹규측		한글	단행본	하바롭	
	새계단에서		한글	단행본	하바롭	
	쏘베트 주권-소식자학교 자습자용		한글	교과서	하바롭	

1925년에 발간된 서적은 「자란이의 독본」 등 5편이 있으며, 1926년에는 「새독본 붉은아이」 등 총 3편이 있다. 1927년 이후의 서적들은 연해주 한인소비에트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기유아원은 무엇인가」, 「하긔유아원사업」 등은 탁아소문제를 다루고 있고, 「농민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 등은 새로운 형태로서 농업문제와 토지보상문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1928년에 발간된 「옮는 병과 그와 투쟁하는 방법」, 「43소년탐험군의 유희」 등은 건강한 생활과 도덕적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1929년에는 많은 번역서와 사회주의 지도부 지침, 문맹퇴치용 서적, 교원을 위한 교재들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극동지역의 원동변강 국립출판사, 국립연합출판사 원동지부에서 발간되었다(표 14 참조).

〈표 15〉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31-1933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31	민족문제에 대하여	술리안 므	한글	단행본	하바롭	
	새전쟁의 위험과 우리의 국방		한글	단행본	하바롭	
	쎄쎄세르 광산로동자 직업회운동 연강위원회와 북화래석유주식화사 단테계약		한글	단행본	하바롭	
	어업꼴호즈		한글	단행본	하바롭	

1932	2년계획을 완성하는 제4년인 1932년도 농촌경리세람	살리모브 쓰	한글	단행본	하바롭	
	볼세비크적 도정에서		한글	단행본	하바롭	
	공산청년회에서 구체적 지도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하바롭	
	고려어 수학 및 장련과학 강령		한글	교과서	하바롭	
	사회학과본과 초등학교 3학년용 상편	김병호	한글	교과서	하바롭	
	꼴호즈 생산-재정 통계의 기초적 규정	그리고리예브	한글	단행본	하바롭	
	높은 수확을 위하여		한글	단행본	하바롭	
	레닌의 유언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사회학과본 꼴호즈 청년학교 제1학년용	하: 박뽀뜰 번역 상: 이종일 번역	한글	교과서	하바롭	
	사회학과본-초등학교 사학년용		한글	교과서	하바롭	
	세쎄쎄르 고농과 목자의 사회보험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레닌과 스딸린이 중국분할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1933	로동자 농민정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극동에서 이러난 제국주의전쟁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중국혁명과 국제공산당의 임무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12차 쁠레늅 테-제 결정서 결의문		한글	단행본		
	외국로동자대표단과의 담화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사회학과목 꼴호즈청년학교 이학년용		한글	교과서	하바롭	
	레닌주의의 기본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공산청년단체 및 빼오네르단체의 장성과 그들의 정치교양사업형편		한글	단행본	하바롭	
	당사업에 대하여		한글	당출판	하바롭	
	목재울모리에서 브라가드를 어떻게 조직할까	그라봄쓰끼	한글	당출판	하바롭	
	사회과학본,초등학교 삼학년용 하	이문현 역	한글	교과서	하바롭	
	어장에서 투쟁하는 공산청년	김와실리	한글	단행본	하바롭	
	17차 당 대회 결정서들		한글	당출판	하바롭	
	콩과 그 재배법		한글	교과서	하바롭	
	동방민족대학의 정치적 임무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고기잡이에 대하여	게라시모브모크	한글	단행본	하바롭	
	과거의 붉은 빨찌산과 적위군들에게 변제와 우선권을 줌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하바롭	
	농촌사업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하바롭	
	공산청년회의 임무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쏩호즈 꼴호즈내의 가축위생감시원의 일지 말고 할 일		한글	단행본	하바롭	
	농민문제에 관한 당의 세 가지 기본적 표어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1931년에는 4편의 문헌이 주로 민족문제, 국제정세, 어업꼴호즈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1932년에는 12편 가운데 「사회학과본」 등 한글교재가 4편이 있다. 1933년에는 21편 가운데 사회주의 활동관련 지침들이 10여편이 있다(표 15 참조).

1934년에 발간된 서적으로는 7편이 있으며, 특히 「매에 대한 노래, 바다제비에 대한 노래」의 경우 극동지역이나 모스크바에는 없던 책이었다. 1935년에는 8편, 1936년에는 5편, 1937년에는 8편이 발간되었다(표 16 참조).

〈표 16〉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 소장 한글문헌 목록(1934-1937년)

발행년	서명	저자	언어	형태	발행지	발행처
1934	개정교정 기하학교과서-중등학교 팔구학년용	유, 오, 구르위츠	한글	교과서	하바롭	
	6자 전동맹 당 꼼페렌치아의 결성서들		한글	단행본		
	매에 대한 놀애, 바다 제비에 대한 놀애		한글	단행본		
	13차 국제공산당 쁠레눔테제와 결의		한글	단행본		
	봉건시대역사 중등학교 육칠학년용	아, 이, 구꼽쓰끼	한글	단행본	하바롭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문제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문제와 대답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1935	위대한 전환의 해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두 연설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개정 기하학교과서-중등 육팔학년용	유, 오, 구르위츠	한글	교과서	하바롭	
	국제공산당 7차 세계대회 결정서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유기화학교과서 중학교 제10학년용	골리드 파로프	한글	교과서	하바롭	
	중국 붉은 군대이약이	아, 스메들리	한글	단행본		
	정치경제학 모스크바		한글	단행본		
	레닌주의의 제문제		한글	단행본	레닌그라드	
1936	국방후원회 초급단체에 대한 규정		한글	단행본	하바롭	
	서평 영용적 진군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새시기 새사람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단편소설		한글	소설		
	노인국에 갓다온 굴리웨르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1937	레닌주의의 문제들에 대하여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화학연습문제집	골리드 파로프	한글	교과서		
	맑쓰주의와 민족문제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쏘베트 사회주의공화국 동맹헌법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쎄쎄쎄르 최고소비트 선거법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강령		한글	단행본	모스크바	
	니야기초집		한글	단행본	하바롭	
	공중 및 화학방어에 준비되자		한글	단행본	하바롭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러시아 고려인의 생활속에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정보자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러시아에서 고려인 정보자원 문헌목록을 1900년대부터 1937년까지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연해주 이주 이후 지난 140여 년 동안 고려인 사회는 집합적 해체와 재결합 현상을 반보해 오면서 민족정신에 기반 한 항일 독립운동과 공산혁명 대열에 동참하면서 많은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유통하였다.

둘째, 해외 한민족 디아스포라 측면에서 고려인 사회는 140년 동안 크게 3차례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었다: 제1차(1860년대-1905년), 제2차(1905-1937), 제3차(1937-현재).

셋째, 1945년 이전, 특히 1937년 이전에 연해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지에서 다양한 정보자원이 생산되었으며, 이러한 정보자원을 러시아연방 레닌국립도서관, 러시아 국립역사도서관, 외국문헌도서관, 상뜨 뻬쩨르부르그 국립대학도서관, 이르쿠츠크 문서보관소, 하바로프스크 극동문서보관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넷째, 1908년 「해죠신문」, 「대동공보」 이후 많은 신문과 잡지가 한글로 제작되어 발행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몇 회 이상 발행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연해주에서 소비에트 건설 초기 고려인들에 의해 한글교과서가 다양하게 발행되었다(수학, 지리, 역사, 사회주의 학습, 물리, 화학 등). 또한 산업분야에서는 농업, 어업, 광업, 상업, 그리고 여성, 건강, 질병, 생활상식 및 사회생활 관련 각종 지침서, 각종 음악예술 관련자료가 발행되었다.

여섯째, 소장기관으로는 특히 레닌국립도서관 동양학자료센터의 한국학도서실, 상뜨 뻬쩨르부르그 공공도서관에는 1900년대부터 1945년 이전까지의 많은 한국학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과거의 기록된 역사는 현재의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부강한국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된다. 따라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는 교육적 측면에서 러시아 고려인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보자원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교훈과 교육의 필요성을 부여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추후 관련 연구자들은 193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려인 정보자원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게르만. 한인 이주의 역사. 서울: 박영사, 2005.

김연수. "소련속의 한국문학." 詩文學, 통권210권(1989, 1), pp.42-56.

김정현, 장우권, 김홍길. "재외한인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술진흥재단 중간보고서, 2006.

모스크바 동방민족연구소. 러한대사전. 모스크바: 동연구소, 1966.

박 보리스, 니콜라이 부가이.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재러한인 이주사. 김광환, 이백용 역. 서울 : 시대정신, 2004.

반병률.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학 관련 기관과 한인자료 현황." 역사문화연구, 제20집(2004), pp.135-164.

엄순천. "러시아에서의 한국문학 번역현황 조사 및 분석." 러시아연구, 제13권, 제2호(2003), pp.59-91.

이광규. 러시아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이광규. 재외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서울: 집문당, 1997.

이명재. "러시아 지역의 한글 문학 현황." 통일문학, 제1권, 제1호(2002, 7), pp.166-182.

이혜승, 방일권. "상트 뻬쩨르부르그 한국학 연구와 원자료." 역사문화연구, 제20집(2004), pp.31-55.

임영상, 조영관.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의 한국학 연구관." 역사문화연구, 제20집(2004), pp.3-29.

한득봉. "Ким Ф. З. Звуковой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9века", Канд. дис. М. 1958.

한득봉. "Мазур Ю. Н",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 1960

Avgustin, arkhimandrit. Russkaja pravoslavnaja missija v Koree, Pravoslavie na Dal'nem Vostoke, Vyp.1 SPb., 1993.

СИМБИРЦЕВОЙ Т.М., Потриарх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ви Корее архимандрид Хрисан ф (1869-1906): Его дела и время - «Христианство на дельнем Востоке, Мат. меж. науч. конф., 2000.

Grigorcevich S.S. Lz istorii otechestvennogo vostokovedenija: Vladivostokskij Vostochnyj institut v 1899-1916 gg., Sovetskoe vostlkovendenie, no.4, 1957, s.131-140.

Khokhlov A.N. Korejskij patriot Hwan Kil-myon v ocenke rossijskoj dal'nevostochnoj pressy, Rossijskoe koreevedenie, Al'manakh, Vyp.1 M., 1999, s.72-80.

Концевич Л. Р, L. Volodina. Библиография Корея 1917-1970. 1981.

Przheval'skii, N. M. Przheval'skii. Putesbestvie v Ussurisskom Krae: 1867-1869. 1969.

Pak Ir. Korejskij fond Alma:Atinskoj biblioteki im. Pushkina, Kratkie soobshchenija Instituta vostokovedevija ANSSSR, no.1, 1951, s.42-44.

Petrov A.I. Korejskaj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1897 - 1917.

Simbirtseva T.M. Poseshchenie Korei ehkspedicidj admirala Putjatina: nakhodki I kommentarii juzhnokorejskogo istorika, Koreja, Sbornik statdj. K 80-letiju so daja rozhadenija prof. M.N. Paka, 1998, s.272-283.

Simbirtseva T.M. Iz istorii khristianstva v Koree: k stoletiju pravoslavija, Rossijskoe koreevedenie, Al'manakh, Vyp.2 M., 2001, s.261-301.

Trotsevich A.F. Rukopisnye sobranija 'neoficial'nykh istorij' (jasa) v biblioteke Vostochnogo fakul'teta SPeterburg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Rossijskoe koreevedenie, Al'manakh, Vyp.2 M., 2001, s.197-208.

Tyagay G.D. U istokov russko: korejskikh kul'turnykh svjazej, Koreja. Sbornik staej. K 80-letiju so dnja rozhdenija prof. M.N. Paka, M., 1998, s.284-296.